

# 개 회 사

'22. 9. 6.(화) 14:00

금융투자협회 3층(볼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I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증권형 토큰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본시장 분야 정책세미나입니다.

그 간 두 차례의 세미나는 자본시장 신뢰제고를 위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정책화하는 데에  
귀중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 (1차) 6.17일,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 9월중 정책발표 예정  
(2차) 7.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 9.5(월) 정책발표

오늘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Ⅱ. 자본시장의 디지털 혁신

---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그 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주식·채권 등 투자자 권리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증권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업의 손익에 대한 관련한 다양한 권리를 발행

자본시장 규율체계가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포용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의 원칙을 균형 있게 지켜나가  
“책임 있는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Ⅲ. 증권형 토큰 정책방향

---

여러분, 널리 알려진 격언 중에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벤치마크 할 만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생소한 IT 용어 사이에서  
금융시장의 “Basic”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본시장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시도되어  
경제의 부가가치와 활력을 제고하는 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증권형 토큰의 정책방향 또한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法 §1(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 IV. 맺음말

---

여러분,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